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김태수 의원(중랑2)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중랑구 제2선거구 출신 김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성공업지구는 2004년 가동된 이후 2007년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더욱 활성화되어 운영되었으나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의 일환으로 2016년 2월 10일 가동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으로 개성공업지구의 재가동이 현실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하는 서울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들의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기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평화적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여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가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